

N E W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홀로 공부하는 수능

홀수 국어



국어북

기출



훈련도구

2

현대시



도서출판 홀수
Holsoo Publishers

새롭게 바뀐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새로운 수능 국어는 2022학년도 시험부터 도입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국어는 공통과목(문학 + 독서) +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or 화법과 작문) 구조가 도입됩니다.
2.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3. 총 45문항 중, 공통과목은 34문항(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이며, 선택과목은 11문항입니다.

개정 수능 국어	공통과목 (문학 + 독서)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or 화법과 작문)	총합
문항 수	34문항 (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	11문항	45문항
배점	76점	24점	100점
시험 시간	80분		

수능 국어가 새롭게 바뀌었으니, 이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무용지물일까요?

아닙니다! 수능 시험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수능 국어 시험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학습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형식과 내용에 익숙해지되,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시험의 성격은 기출 분석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출

1. 수능 국어 시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
석
을

2. 평가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물어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들의 의미를 알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4. 정답을 선택할 때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찾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통
해

5. 문제를 틀리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능 국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기출 분석서

NEW 2022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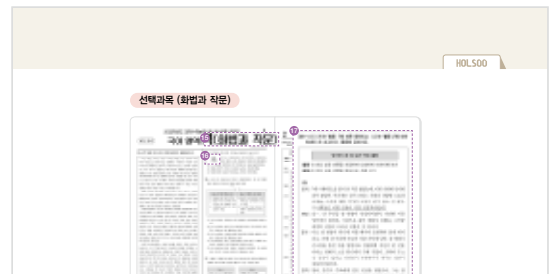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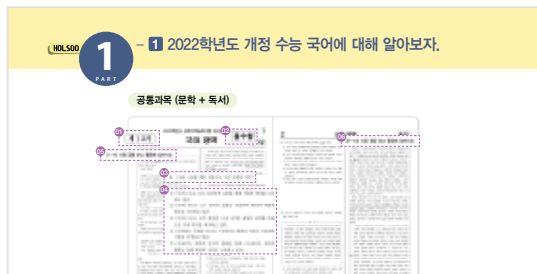
홀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 국어북 을 소개합니다.

홀수만의 차별화된 공부 방법과 전략

첫째 새로운 수능 국어에 최적화된 학습 방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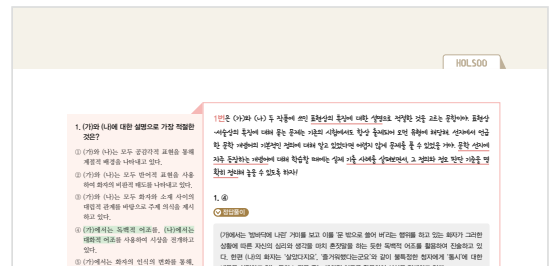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를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기출 분석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원에서 제시한 2022학년도 예시문항 국어 영역의 전 페이지를 싣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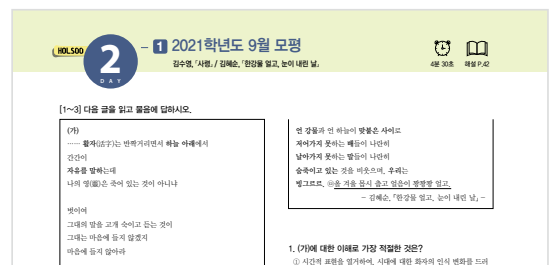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홀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 -  국어북 **문학** 1권과 **독서** 6권의 PART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 예시문항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개정 수능 국어를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와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여전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신유형의 요소를 고려한 기출 분석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홀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 -  국어북 **문학** 1권과 **독서** 6권의 PART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수능 국어에 맞게 신유형의 요소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변함없이 중요한 국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선별하여 배치했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분권화된 주간지 형식의 새로운 기출 분석서로 기획하여 DAY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둘째 지문 분석과 선지 판단 훈련을 위한 단계별 학습법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인 지문 분석과 선지 판단 훈련을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먼저 각 영역별로 지문을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운 후, 홀수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한 반복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지 판단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1. 이상적인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

수능 국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지문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홀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는 이상적인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로 분석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적인 문학 지문 독해를 위한 3 STEP 훈련

문학 1권의 PART 2와 2~5권의 DAY 1에서 3 STEP 학습을 통해 문학 지문(작품) 독해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EP 1

2016학년도 6월 모의A
교과목 별 호.

1.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STEP 2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STEP 3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상적인 독서 지문 독해를 위한 4 STEP 훈련

독서 6권의 PART 2와 7~9권의 DAY 1에서 4 STEP 학습을 통해 독서 지문 독해를 위한 이상적인 사고 과정을 익힐 수 있습니다.

STEP 1

2015학년도 7월 학평AB
사해문헌의 역사적 배경

1.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STEP 2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STEP 3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STEP 4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지문 분석을 위해 지문에서 찾아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2.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출수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지문과 선지를 연결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곧 기출 분석의 시작입니다. [출수 기출 분석 노트]의 3 STEP 분석을 통해 단순히 정답의 근거를 찾는 것을 넘어, 평가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문과 선지를 연결 짓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구성하는지 등과 같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수능 국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3 STEP

문학 1권과 **독서** 6권의 PATR 3에서 2021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분석하여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 2~5권, **독서** 7~9권을 학습할 때에는 스스로 [출수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여 수능 국어의 선지 판단을 위한 이상적인 사고 과정을 익혀보세요.

STEP 1 시간 제한 풀기

문제 내기 선택할 때 시간제한 풀었는지 확인하기 문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풀 문제

문제	내기 선택할 때	시간제한 풀었는지 확인하기	문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풀 문제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목표 시간 10:00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문제 선지 선지 분석 근거로 활용 보

문제	선지	선지 분석	근거로 활용 보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문제 선지 선지 분석 근거로 활용 보

문제	선지	선지 분석	선지 분석	선지 분석	선지 분석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문제의 선지 분석 결과

문제	선지 분석 결과	선지 분석 결과
1	○	○
2	○	○
3	○	○
4	○	○
5	○	○
6	○	○

*N회독

N회독을 할 때는 3 STEP 훈련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나 학습 상황에 따라 훈련 단계를 조절하여 공부합니다.

1~2회독(1학기)	① 지문의 핵심 요소 및 구조 완벽하게 분석 ② 모든 선지의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 ③ STEP 1~STEP 3의 과정 빠짐없이 시행
3회독 이상(2학기)	① 지문은 흐름 중심으로 분석 ② 선지는 정답 중심으로 근거 확인 ③ STEP 2~STEP 3 중심으로 시행
수능 D-30	① 최근 3년간 수능 기출 지문 반복 ② N회독을 하며 '보안할 점'에 정리해두었던 내용 재확인

셋째 홀수만의 차별화된 심화 보충 해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품 발하는데
날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벗이어
그대의 발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들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나)
한강을 열고, 눈이 내린 날
①**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②혼란만나봐, 아니야 팔등까지 딱딱하게 일었는데,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③바운느라 시시덕거렸다.

④한강을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며, 우리는
보았다. **열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연 강물과 연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롯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을 거울 몹시 출고 열음이 쟁쟁한 열고.

홀수 해설은 문제의 지문을 해설에도 실어 정답과
오답 선지에 대한 근거 확인을 용이하게 합니다.

[B] 지붕에 박힌줄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빨은 듯 비어
[C] **날**을 잉태한 어머니는
검정 어린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이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중저중 글 읽으셨다
[D] 황고목택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변문옥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E]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새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설(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래**라 이름 지었다오
- 유지훈, 「출생기(出生記)」 -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곡설: 사람이 죽어 슬피서 크게 우는 소리.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마음을
저복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사람의 마음의 귀퉁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라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래의 제일 아름다운 분을
아궁이에 지른다.
- 김춘수, 「사람의 마음에 내리는 눈」 -

화자와 대상의 관계	상황에 눈이 내리는 한상적 공간에서 봄의 생명력을 느끼는 사람
상황?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눈이 올 → 봄을 기다리는 사나이의 모습에서 생동감이 나타남 → 눈이 내리자 마음을 덮을 → 겨울 일해야 눈을 덮고 녹적으로 봄을 → 봄에는 아낙들이 아름다운 봄을 지킴

홀수 현대시에서는 화자와 대상의 관계, 상황을
분석하여 시의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돕고자 했습
니다.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
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
감'이라 한다. 시에서 '장소감'의 정의가 나와 있어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
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
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
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한편, 화
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
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화자가 장소의 안과 밖' 중 어디에 있다고 느
끼는지에 따라 장소감이 달라지는구나'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
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
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
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
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간감을 느끼

[시어의 의미 파악 | 정답률 55]

14. (다)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고향의 내 집
㉡: 주막이나 반관(飯館)
㉢: 거리
㉣: 그녀의 빈집
㉤: 그녀의 방

정답률이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
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주막이나 반관)은 화자가 지금의 자신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에 '먼 타
관'에서 쓸쓸히 명절을 보냈을 두보나 이백이 찾아갔을 것이라고 상상한
장소이다. 화자가 ㉣에서 두보나 이백이 과거에 겪었던 상황을 직접 경험
한 것은 아니다.

오답률이

지문에 평론이 있는 경우에는 박광일 선생님의
독해법과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담아 평론
지문을 분석하여 문제를 풀 때 이를 어떻게 활용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정·오답 풀이와 심화·보충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성
했습니다.

홀수 해설은 친절하고 자세한 정·오답 풀이와 심화·보충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의 질문

- Q:** (가)의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자아의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나요? 또한 '향기로운 싸늘' 후 평화로운 세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모두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 것
A: (가)의 3연에서 화자는 '꽃다운 하늘', 즉 긍정적 상황이 드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나래' 떠는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Q&A 게시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애매한 내용이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틀잡기

- ①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문·구·단락을 배치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며는 효과가 있음.
- ② **변주:** 일정한 주제나 형식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전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기법.
- ③ **반복:** 시의 주제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의 앞뒤나 중간에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기법.
- ④ **회의감:** 의심이 드는 느낌.

기틀잡기에는 문학 개념어 및 간략한 문제 접근법을 담아 수능 국어의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게 했으며, 이것만은 챙기자에는 해당 지문에서 꼭 챙겨가야 할 어휘를 풀이하여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기 분석

- 고하의 '구두' 그림에 담긴 '존재자의 존재'
 - 구두를 통해 감추어진 존재
 - 농부의 삶
 - 농부의 고독(내면)
 - 대지의 습기와 곡식의 풍요로움

〈보기〉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문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적 문제

- 학생들이 정답 이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가 ④번이다. 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 것에서도 (나)의 화자가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렸다고 했을 공간이나 상상적 세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④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 어휘 풀이에서 '동편제'는 '판소리의 한 유파'를 의미한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합니다. 정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매력적 오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수험생이 흔히 갖기 쉬운 사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 영역 구성 살펴보기

[공통과목] 1~9권

영역	권	구성
문학	1권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문학 분석
		PART 2 이상적인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 1 현대시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2 현대산문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3 고전시가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4 고전산문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 홀수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 (2021학년도 수능)
	2권	[현대시]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3권	[현대산문]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4권	[고전시가]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독서	6권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독서 분석
		PART 2 이상적인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 1 인문·예술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2 사회·문화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3 과학·기술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 홀수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 (2021학년도 수능)
	7권	[인문·예술]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8권	[사회·문화]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9권	[과학·기술]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홀수 국어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세요.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구성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화법과 작문 분석
PART 2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1 화법 핵심 개념 2 작문 핵심 개념
PART 3 새로운 수능 국어를 위한 기출 분석 훈련 1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 (2021학년도 수능) 2 3개년 평가원 기출 분석 훈련
[+ α] 개정 수능 국어 형식 모의고사 훈련 (홀수 제작 문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구성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언어와 매체 분석
PART 2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1 언어 핵심 개념 2 매체 핵심 개념
PART 3 새로운 수능 국어를 위한 기출 분석 훈련 1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 (2021학년도 수능) 2 5개년 평가원 기출 분석 훈련 (언어)
[+ α] 개정 수능 국어 형식 모의고사 훈련 (홀수 제작 문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 언어와 매체는 3월 출시 예정입니다.

문학 2권 CONTENTS & PLAN

DAY	PAGE	기출 분석 훈련	학습 CHECK		
			1회	2회	3회
DAY 1	P. 16	1 2020학년도 수능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김기택, 「새」	☐	☐	☐
	P. 22	2 2018학년도 9월 모평 김현승, 「플라타너스」 / 정지용, 「달」	☐	☐	☐

DAY	PAGE		기출 분석 실전	학습 CHECK		
	문제	해설		1회	2회	3회
DAY 2	P. 30	P. 42	1 2021학년도 9월 모평 김수영, 「사령」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	☐
	P. 32	P. 46	2 2020학년도 9월 모평 김영랑, 「청명」 / 고재종, 「초록 바람의 전언」	☐	☐	☐
	P. 34	P. 49	3 2019학년도 수능 유치환, 「출생기」 /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	☐
	P. 36	P. 52	4 2019학년도 6월 모평 박봉우, 「휴전선」 / 배한봉, 「우포늪 왁새」 / 김기림, 「주유온천행」	☐	☐	☐
DAY 3	P. 60	P. 70	1 2021학년도 6월 모평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	☐
	P. 62	P. 74	2 2020학년도 6월 모평 김광균, 「추일서정」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	☐	☐
	P. 64	P. 77	3 2018학년도 6월 모평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 조지훈, 「고풍 의상」 /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	☐	☐
	P. 66	P. 81	4 2017학년도 9월 모평 윤동주, 「병원」 / 박목월, 「나무」	☐	☐	☐
DAY 4	P. 86	P. 100	1 2017학년도 수능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	☐
	P. 90	P. 106	2 2015학년도 수능B 오장환, 「고향 앞에서」 / 최두석, 「낡은 집」	☐	☐	☐
	P. 92	P. 110	3 2015학년도 6월 모평A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	☐
	P. 94	P. 113	4 2018학년도 7월 학평 백석, 「두보나 이백같이」 / 문태준, 「가재미 3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 시의 장소감	☐	☐	☐
DAY 5	P. 120	P. 130	1 2017학년도 6월 모평 박두진, 「향현」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박이문, 「눈」	☐	☐	☐
	P. 122	P. 135	2 2014학년도 9월 모평A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	☐
	P. 124	P. 138	3 2013학년도 수능 김수영, 「폭포」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11」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	☐	☐	☐
	P. 126	P. 142	4 2012학년도 수능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김동환, 「산 넘어 남촌에는」 / 이광명, 「북찬가」	☐	☐	☐
DAY 6	P. 150	P. 162	1 2012학년도 9월 모평 박남수, 「새 1」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	☐
	P. 152	P. 166	2 2010학년도 9월 모평 이육사, 「소년에게」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 이현보, 「어부단가」	☐	☐	☐
	P. 156	P. 171	3 2010학년도 6월 모평 정지용, 「발열」 / 김영랑, 「거문고」 / 최승호, 「대설주의보」	☐	☐	☐
	P. 158	P. 175	4 2017학년도 4월 학평 한용운, 「수의 비밀」 / 문정희, 「짚레」	☐	☐	☐
DAY 7	복습하기					



[공통과목] 문학 + 독서 기출 분석 훈련 PLAN

01 9주 완성 학습 방법

『홀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는 공통과목(문학 + 독서)이 총 9권으로, 일주일에 한 권씩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9권까지 차례로 학습하거나, '문학 → 독서 → 문학 → 독서 ...'와 같이 문학과 독서를 번갈아 가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 1권의 DAY 1을 학습했다면, 다음날 독서 6권의 DAY 1을 학습하고 다음날에는 다시 문학 1권의 DAY 2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각 권마다 DAY별 학습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니 '학습 CHECK'에 표시하면서 총 9권의 학습을 먼저 1회 완성해 보세요.

*2회, 3회 반복 학습을 할 때에는 2일 분량을 하루에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2 5주 완성 학습 방법

5주 완성 PLAN은 2회 또는 3회 반복 학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내용	방법
1주차	문학 1권 + 독서 6권	문학, 독서 각 DAY별 학습 분량을 하루에 분석 (5주차에서는 문학 5권과 자신의 약점 영역 한 권을 선택하여 어려웠던 내용 위주로 복습하세요.)
2주차	문학 2권 + 독서 7권	
3주차	문학 3권 + 독서 8권	
4주차	문학 4권 + 독서 9권	
5주차	문학 5권 + 약점 영역	

03 강의 진도에 맞추어 필요한 영역 학습하기

박광일 선생님의 2022학년도 <훈련도감>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은 강의 스케줄에 맞추어 예습 및 복습 용도로 『홀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의 수강 계획과 진도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 진도에 맞추어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학습해 보세요. 주도적인 학습으로 학습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의 2022학년도 <훈련도감> 강의에서 본 교재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학습에 참고해주세요.

*강의는 대성마이맥 홈페이지 (www.mimacstudy.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D A Y

기출 분석 훈련

홀수국어
기출  훈련도구
 국어북

이상적인 현대시 지문 독해를 위한 3 STEP 훈련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지문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갈래별로 지문에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를 위한 현대시 읽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요소를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STEP 1 '화자'와 '대상'을 찾아 형광펜을 치며 문제를 풀어 보세요.

스스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두 가지 색의 형광펜과, 펜을 준비하고 다음의 요소를 찾아 체크하며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우선 '화자', '대상'을 찾아 보세요.

화자는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혹은 '우리'라는 말이 나타나면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한 것이고, 그런 말이 없다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화자가 숨어 있는 경우에도 화자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화자를 확인했다면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을 확인합니다. 어떤 자연물에 주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STEP 1**에서는 먼저 표면에 나타난 '화자'와 '대상'만 찾아 형광펜을 치며 문제를 풀어 봅니다.

STEP 2 '화자'와 '대상'을 확인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며 지문을 다시 읽어 보세요.

화자와 대상을 파악했다면, 화자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제 시적 상황을 파악합니다. 화자와 대상을 파악하고, 화자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현대시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품 중간중간 정리한 '시적 상황' 중 빈칸은 '화자'나 '대상', 또는 특정 장소, 행위, 정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지문을 다시 읽을 때에는 **STEP 1**에서 체크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빈칸은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바로 채워 보세요.

STEP 3 해설지를 펴고 **STEP 1** 과 **STEP 2** 의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이때에는 단순히 정답과 빈칸을 맞힌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지문 독해에 있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빈칸을 채우지 못했거나 잘못 채운 내용이 있는 학생들은 문학 지문에서도 사실 관계를 꼼꼼히 따져 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보고 자신의 문제 풀이 사고 과정과 비교해 보세요. 문학 문제도 선지 판단의 기준은 시험지 안에 있습니다. 지문이나 <보기>에서 선지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문 독해를 위한 3 STEP 훈련은 실전에서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STEP 1 '화자'와 '대상'을 찾아 형광펜을 치며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굶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찌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

D A Y

출 수 국 어
기출 ㉸ 훈련도구
국어북

기출 분석 실전

HOLSOO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위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뭇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의감을 표현한다.
- ㉢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정답과 해설

출 수 국 어
기출 ㉮ 훈련도구
국어북

DAY 2

01 ㉟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서는 달라진 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되거나 강조되는 부분 역시 중요하므로, 새로운 형식에 익숙해지되,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수능 국어 문학의 필수적 지식과 학습 범위를 잘 파악해 두도록 하자.

○

- **1**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것으로, 김수영의 「사령」과 김혜순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이 지문에서 각각 (가)와 (나)로 제시되었어. 평가원 수능 문학에서는 일반적으로 ① 문학 개념어에 관한 지식, ② 작품을 중심으로 한 이해와 감상의 적절성 판단, ③ <보기>나 평론으로 제시된 다양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1~3번은 각각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

○

- **2**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것으로, 김영랑의 「청명」과 고재종의 「초록 바람의 전언」이 지문에서 각각 (가)와 (나)로 제시되었어. 6번의 <보기>에서 '생태학적 상상력'이라는 외적 준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상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 이처럼 현대시 파트에서는 <보기> 문제로 상호 텍스트성과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이러한 유형의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보고 익숙해지도록 하자.

○

- **3**은 2019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것으로, 유치환의 「출생기」와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지문에서 각각 (가)와 (나)로 제시되었어. 주목할 만한 부분은 9번의 <보기>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야.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나와 마을」이라는 샤갈의 '그림'에서 받은 영감을 '시'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와 문학 작품 간의 연관성을 활용한 문제도 확장된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어.

○

- **4**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것으로, 현대시 박봉우의 「휴전선」과 배한봉의 「우포늪 왓새」, 수필 김기림의 「주을온천행」이 지문에서 각각 (가), (나), (다)로 제시되었어. <보기> 문제가 두 개나 출제되었는데, 그중 14번은 <보기>에서 수필의 갈래적 특징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을온천행」에 대한 감상 내용을 묻고 있어.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도 작품의 갈래적 특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니, 이러한 유형의 기출 문제는 <보기>의 내용과 선지의 구성을 주목해서 봐 두도록 하자.

○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① 혼련반나뭇,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②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③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뭇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한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④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짹짹 열리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화자와 대상의 관계	강물에 붙들린 배들과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을 보고 비웃는 '나'(우리)
상황?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보고 비웃음 → 하늘도 얼어붙어 말들도 불박함 → 몹시 추운 겨울 숨죽인 배들과 말들을 보며 비웃음

화자와 대상의 관계	죽어 있는 자신의 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반성하는 '나'
상황?	자유를 말하는 활자와 달리 죽어 있는 '나'의 영 → 벗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낌 →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 → 죽어 있는 '나'의 영에 대한 냉소, 자조

| 표현상의 특징 파악 | 정답률 86

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풀이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가)의 1연과 마지막 연에서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를 반복하여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화자 자신은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2연~4연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라'를 반복하여 침묵을 지키는 자신과 침묵이 지속되는 현실의 고요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점차 심화하고 있다. (가)는 이렇게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가)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아라'를 통해 시대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은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가)에서 대상에 대한 호칭이 '벗'에서 '그대'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가)의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에서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이', '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여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물음의 형식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름잡기

- ① 열거: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죽 늘어놓음.
② 경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③ 원근: 멀고 가까움.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에는 '이, 그, 저' 등이 있다.

| 시구의 의미 파악 | 정답률 77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얼고.

✔ 정답풀이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배가 '강물에 붙들린' 것은 '한강물'이 얼었기 때문이므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풀이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화자는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라고 하였으므로,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이자 화자의 관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화자가 배들을 비웃고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구는 등의 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시시덕거렸다'는 '실없이 웃으면서 조금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다.'라는 뜻이다. 화자는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라고 하였으므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은 비웃음의 대상이라 할 수 있고, '시시덕거렸다'에는 화자의 냉소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에서 '한강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은 추운 날씨에 한강물이 얼었기 때문이므로, 외부의 힘이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은 몹시 추운 겨울 얼음이 얼어붙은 상황을 '팡팡팡'과 같은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가혹한 추위가 닥친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